

리더는 무슨 생각을 하여야 하는가?



곽수정
한미기초개발(주) 대표이사
gsj2060@chollian.net

리더십이란 단체를 이끌어 가는 자의 덕목을 리더십이라 한다. 리더십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어떤 생각과 어떤 과정으로 리더에 오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지방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기술자들은 타 분야에 비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리더가 많은 편이다. 리더의 역할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고대 인물들을 통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상대적인 인물들과 비교함으로써 지도자의 역할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플르타르크 영웅들을 중심으로 인물의 성품이 비슷한 사람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는 어떤 인물의 리더십에 가까운지 생각해보자.

그리스의 아에게우스 왕은 혼란기에 영웅처럼 등장한 테세우스가 그리스에 나타나자 두려운 나머지 테세우스를 살해할 목적으로 왕국으로 초청하였다. 죽이기 위하여 독주를 준비하였으나 테세우스가 고기를 자르는 칼을 보고 아에게우스 왕 자신이 트로에젠에서 하루 밤을 묵고 간 증표로 담장 밑에 묻어 두었던 칼임을 확인하고 왕은 독주를

바로 차버린다. 아에게우스 왕의 아들인 테세우스는 아테네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신을 자청해서 크레타왕국으로 파견되었다. 아테네는 전쟁에서 패한 죄로 크레타 왕국에 조세를 바치는 해에 크레타왕국의 사신으로 가서 미노스 왕에서 조세를 받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였다. 레슬링, 달리기, 창전지기, 권투 등 내기를 하여 모두 이김으로서 조세제도를 무마함으로써 실력을 인정받고 돌아왔다.

사생아라는 신분상의 한계를 딛고 거의 맨손으로 아테네의 최고의 권력자에 오른 힘은 여론이었다. 테세우스는 일의 결과보다는 여론의 반응에 기반을 두어 시민의 지지를 얻었다. 그 후 왕권을 폐지함으로써 귀족들의 반발을 샀으나 아테네 시민은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를 줌으로써 도시로 사람이 몰리면서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전략적으로 인근 도시국가들과 합병하여 국가를 크게 발전시켰으며 시민들의 편에서 정치를 하였다. 그리스를 창업한 테세우스는 유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포폴리즘의 정치미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인물이지만 여론의 지지와는

반대로 생활은 문란하였다. 난잡한 사생활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고 그 과오가 폭로되어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 혼란에 휩싸였으며 결국 추방되어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만다.

이탈리아 창업자인 로무르스는 테세우스와 비슷한 배경에서 이탈리아를 창업하였다. 알바롱가의 왕에게는 두 아들인 누미토르와 아물루스가 있었는데 누미토르는 왕권을 선택하였고 아물루스는 재산을 선택하였다. 재산을 선택한 아물루스는 군대의 힘을 키우면서 누미토르를 물리치고 왕이 되었는데 누미토르 딸 실비아가 쌍둥이를 임신하여 로무르스와 로무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 아물루스 왕은 두 아들을 숲속에 버리도록 지시하여 버려진 두 아이는 늑대가 젖을 물렸다는 전설이 있다. 아물루스의 왕의 신하 파우스툴루스가 두 아이를 비밀리에 키웠다. 두 아이는 목동으로 자라면서 왕의 목동들과 싸움에서 동생이 체포되자 형이 동생에게 감옥에서 폭동을 일으키도록 밀서를 보낸다.

이 폭동으로 인하여 아물루스 정권이 무너지고 외조부인 누미토르에 왕권을 돌려주고 도시이름을 아실루스라고 명한다 그리고는 로무르스는 측근기용에 있어서 반대파의 부장을 측근으로 기용하였고 싸비네족의 천민과 결혼함으로써 서민정치를 하였다 아실루스와 싸비네족을 결합한 후 왕권을 싸비네족에 양보하는 대신 도시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을 따서 로마로 결정하여 지금의 로마가 탄생하였다.

로무르스는 전쟁을 이용하여 국가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병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패전국의 부녀자들을 약탈하여 배분하였다. 로무르스는 장기적이고도 불변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측근기용의 달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목동에서 왕이된 로무르스는 소외계층을 규합해 로마를 창건하였으나 왕권이 강화되고 공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귀족들 간에 왕권 다툼이 심해지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테세우스나 로무르스는 사생아로 태어나 왕에 오르면서 여론에 의한 시민정치로 나라를 부흥시켰으나 출생성분을 속이지 못하고 최후를 맞게 된 인물들이다. 또 다른 예로 스파르타의 리쿠르고스와 로마의 파비우스는 국가가 힘들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를 부흥시킨 왕으로서 상대적인 인물이다. 스파르타의 리쿠르고스는 내부의 적을 물리치고 왕에 오른 인물이고, 로마의 파비우스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왕에 오른 인물이다. 리쿠르고스는 스파르타 왕국의 에우노무스 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형인 플리텍테스가 왕이 된 후 경쟁자가 갈수록 피폐해져만 갔다. 몸이 세약하여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으며 귀족들은 갈수록 문란해지고 무법천지 정국이 되어 갔다. 형인 왕이 갑자기 급사하자 형수가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고 리쿠르고스에게 결혼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리쿠르고스는 형수에게 아이를 낳도록 권유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왕권을 갖 태어난 아이에게 왕권을 넘기고 스파르타 왕국을 떠나 주변 국가로 정치여행을 떠났다.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진국들의 정치상황을 보았다. 크레타에서 분권권력의 형태를 보았고 이집트 및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로 여행하면서 강대국들의 정치세계를 보는 동안 스파르타는 날로 심각해져 갔다. 장기간 스파르타를 떠났다 돌아온 리쿠르고스는 귀족들의 문란함과 야욕을 개혁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시행하였다. 화폐의 무게는 자그만치 마차로 끌어아만 사용할 수 있는 무쇠로 만들어 부정축재와 문란한 성생활을 추방하였다. 그리고는 공동식사와 공동육아를 시행함으로써 공동의식을 강화

하였으며 장래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여성들에서 운동을 장려함으로써 여성들도 일하도록 하였다.

리쿠르고스는 부패로 얼룩이진 국가를 물리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나라의 장래를 되살려 놓았다. 스파르타 왕족으로 태어나서 강대국들의 정치세계를 경험하고 부패에 빠진 내부의 적을 물리침으로서 위대한 스파르타 왕궁을 부활하였다.

파비우스 왕이 들어서기 전부터 로마는 이탈리아 전역을 정복하고 소아시아의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며 승승장구한 시기였다. 국가가 부강해서 귀족들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고 내부적으로는 당파싸움으로 귀족의 경제정책에 따른 군벌들의 불만과 사치와 향락이 만연하던 시기이다. 로마는 귀족들이 정치는 멀리하고 사치가 만연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이 끓이지 않았으며 전쟁에 시달렸다. 그러던 시기에 카르타고군의 한니발 장군이 바다로 오지 않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를 침공하여 밀라노와 토리노를 쉽게 점령하였다. 파비우스는 정치적 라이벌인 미누키우스를 부관으로 기용하였다. 미누키우스는 용맹했으나 용졸하고 성질이 급하여 파비우스와는 정반대의 성격으로 어울리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한니발과의 거듭된 전쟁에서 패하자 시민들은 바다의 신 때문이라 여기고 신을 믿기 시작하였다. 어려운 시기에 왕이된 파비우스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신전으로 직무실을 옮겼다. 파비우스는 한니발의 전쟁에서 싸우지는 않고 물러나거나 지연작전으로 시민과 군내부에서는 불신이 증폭되어 갔다. 오히려 돈을 주고 한니발에 잡혀간 포로들을 구하자 반대파들은 비아냥거렸지만, 그러나 군심은 오히려 우호적이었다. 여론이 악화되어 군의 권력이 미누키우스에게로 넘어가자 지휘권을 잡은 미누키우스는 한니발을 공격하여 패하고 만다. 파비우스는 포니어

전쟁을 통해 지연작전으로 한니발을 물리치고 무기력증에 빠진 로마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지연작전으로 한니발군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한 작전과 파탄에 빠진 귀족들이 무너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외부의 적을 이용하여 내부의 적을 물리친 왕이다. 이처럼 두 인물을 비교해보면 스파르타의 리쿠르고스는 도탄에 빠진 국가를 재건하기위해서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여성들도 일하게 함으로서 평등사회를 이룸으로서 내부의 적을 물리친 왕이며, 이탈리아 파비우스는 한니발의 전쟁에서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지연작전으로 도탄에 빠진 귀족들을 몰아내고 외부의 적을 물리침으로서 내치를 강화한 왕이다.

세 번째로 이탈리아 변방의 귀족출신으로 왕에 오른 술라와 아테네의 염색기술자로 태어나 왕에 오른 토미스토클레스를 비교하였다. 태생적인 배경이 좋지 못한 술라는 성격이 부조리하고 모순이 많다. 귀족 집안으로 집정관을 지낸 조상도 있었으나 줄리어스 시저와 마리우스가 지배했던 당시 사치와 허영이 심한 시기이다. 술라는 광대나 가수들과 어울렸고 술과 여자를 끼고 살았으며 부조리에 능한 사람이었다. 마리우스가 리비아와 전쟁시 재무관으로 임명하여 몇 번의 전투에 승리하여 부장으로 진급하였고 누미디아의 왕인 보쿠스와 가까운 사이이다. 전쟁에 나간 술라는 리비아를 공격은 안하고 쥬굴타를 생포하여 공적을 인정받고자 보쿠스를 도와 동생인 쥬굴타를 생포하였으나 마리우스와 불편해졌다.

정치적 후원자인 카툴루스가 마리우스를 대신해 집정관에 선출되자 군무위원으로 발탁되었다. 로마의 기사도정신은 대항하는 적은 끝까지 섬멸하고 항복하는 적은 반드시 살려 둔다는 명예로운 원칙을 술라는 철저히 배반하였다. 전쟁 때 승리(그리스, 페르시아 점령)하며 전리품을 부

하들에게 나누어줌으로서 군법에 위배되는 반역죄를 지었다. 비굴한 행동으로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작은 실수에 목을 잘라버리는 종잡을 수 없는 성격으로 가까운 친구를 자주 암살하고 맹목적인 충성만을 요구하였다.

굶주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꿈꾸면서 괴팍한 성격은 약한 본성을 한 단계 진화하고 잔인함과 교활함을 내세울수록 이로워지는 장소를 잘 구별하는 인물이다.

말년은 참혹할 정도로 방종하였으며 정권을 잡은 술라는 권력을 잡은 과정이 필요했을 뿐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떠돌이 악사들과 잠자리를 같이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회를 베풀면서 방탕하였고, 병이 전염되어 살이 썩어 가는 병에 걸려 피를 토하고 죽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의 미천한 염색기술자 집안 출신의 아테네 수장으로 페르시아 군을 몰아낸 인물이다. 남을 지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으로 어린시절 부터 정치가를 꿈꾸며 빈민들의 절대적 지지로 정계에 입문하였다. 가정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로 직선적이고 공격적으로 의회에서 늘 비난을 받았다. 이단자인 테미스토클레스는 귀족들이 부정부패에 신음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위가 위험하다고 선동함으로써 빈민 및 불평분자들의 신임을 받고 정치적 입지를 다진 인물이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장군으로 임명되어 페르시아 전쟁에 참여하였다. 아테네 전함 180척으로 페르시아 해군 1000척과의 싸움에서 배 바닥의 특성을 이용하여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하여 전멸시키는 공을 세운다. 왕권의 신분이 아닌 테미스토클레스는 신분의 사슬에 얽매인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도편 추방제를 시행하였다. 권력에 눈이 어둔 테미스토클레스는 권력을 잡은 후 귀족들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기가 만든 도편 추방제에 몰락하고 해외로 추방되었다.

이탈리아 왕족출신이 아닌 술라는 정치적인 후원자인 카틀루스의 힘으로 장수가 되어 전쟁에 나가 승리함으로써 왕이 된 인물로 성장과정이 방탕해 결국에는 성병에 걸려서 죽는다.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빈민들의 지지로 정계에 입문하여 페르시아 전쟁으로 영웅이 되어 왕이 된 인물이지만 본인이 만든 도편 추방제에 몰락한 왕이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한 왕인 반면 왕자로 태어나 계모슬하에서 자란 알렉산더는 신전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왕이다. 전쟁마다 점술가를 데리고 다녔으며 독수리로 운명을 점쳤다. 도리에 맞는 일이면 순종하며 자랐으며 명령을 내리기 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천상에서 내려온 신을 알현하였다.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할 때 자신을 신격화할 수 있었으나 부하들은 전리품을 태워버리고 도망가는 배신을 당당하기도 했다. 페르시아왕 다리우스와 알렉산더의 마지막 전투인 유프라 테스강 유역에서 전투는 일화로 유명하다. 알렉산더 대왕은 적과 싸움에서 숨어서 공격하지 않고 대낮에 강을 건너 정면으로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알렉산더의 철학은 전투에서 정면에서 승부하기를 원했으며 야간공격이나 비신사적인 공격은 절대하지 않으므로써 스스로 신격화하려고 노력했다. 티플레이를 중요시하는 스타일로 카리스마가 넘치는 대왕이면서 유연한 리더십이 있으며 왕이 아닌 신으로써 군대를 다스리면서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왕이다.

정치선동가인 시저는 귀족과 상류층을 제외한 중산층과 도시 빈민층의 지지를 받고 성장한 정치가이다. 시저는 폼페이우스와 대적할만한 영향력은 없지만 군무위원선거 출마를 결심하였다. 그러나 승산이 없자 측근으로 바꾸어 대리 선거전을 치르면서 폼페이우스에게 폐하였으나 폼페이우스와 간접적으로 대적하는 것만으로 1승을 쟁겼다고 본

다. 한 시대를 아우른 절대권력과 잠재된 폭력성이 들어나는 성격으로 팀의 특성을 증시하고 승리를 위해 팀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현실적으로 로마를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은 못되었으나 물리적으로 로마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져 왔다.

폼페이우스의 1인 지배체제하에서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대파인 크라수스를 이용하여 폼페이우스를 공격하였다. 폼페이우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이미 약혼한 딸 줄리아를 폼페이우스에게 주고서 4군단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장병과 똑같은 생활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막사에서 함께 자고 행군하였다. 직책은 용감한 자에 주고 약자는 안전한 자리로 배치하였으며 군대를 자신에게 맞췄다. 군대의 보수체계를 성과급 적용불만을 해소하였으며 군대의 절대적 신임으로 군사력을 이용하여 폼페이우스를 물리쳤다.

독재자 시저왕을 사이에 두고 2인자 다툼이 치열한 두 인물로서 브루투스나 안토니우스를 비교하였다. 브루투스는 철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시저와 같은 야성미가 부족하였으나 정치적 계승자인 플라톤 철학의 신봉자로서 시저를 죽인 사람이다. 브루투스는 시저의 2인자로서 외부에서 영입한 외부인사다. 마리우스, 술라, 시저로 이어지는 독재자들의 출현으로 도덕적 해이와 나태함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던 시기이다. 브루투스는 시대와 타협하는 대신 수양과 철학을 연마하여 가치를 높은 인물로서 인문학의 대가이며 성격은 고뇌형으로 사상의 신봉자인 이상주의자다. 정치형태는 공화정을 신봉하였으며 부친은 폼페이우스에게 사형당했다. 어머니 세르빌리아는 시저가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이였으며 브루투스가 아들일지 모른다고 하였다.

시저와 폼페이우스 간에 전쟁으로 시저가 승리하자 이집트로 도망간 후 브루투스는 시저에게 편지를 보낸 후 시

저의 측근 중 가장 높은 대우를 약속받고 폼페이우스가 이집트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밀고나 다름없는 업적으로 이집트에 돌아온 외부인사이다. 브루투스는 원수인 시저에 몸을 의지하며 시저의 2인자로서 안토니우스와 자리 다툼을 하였으며 브루투스가 반란에 실패한 이유는 안토니우스를 살려둔 것과 안토니우스가 원로원에서 연설하도록 내버려두고 시저의 장례식을 맡긴 것은 실패의 원인이다. 고뇌형 인간은 머리와 몸이 따로 놀기 때문에 시대를 읽는 눈이 부족하다

반면에 안토니우스는 풍채가 좋은 미남자로서 사형당한 계부를 닮았으며 군사적 계승자인 난봉꾼이며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브루투스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하였다. 조부는 마리우스에게 살해당했고 아버지는 예의 바르고 단정한 사람이었으나 일찍 죽었으며 어머니는 줄리아로 시저와 친척이다. 정치 깡패 집단인 클로디우스에 가담한 적이 있으며 초기 로마에 도착해서는 헤라클레스 아들이 안톤의 후예자라 소문냈으며 여색을 즐기며 권력의 맛을 보았다.

시저의 장례식을 주관한 사람으로서 시저의 2인자이며 미천한 직위에서 조직의 신임을 얻은 인물이다. 시저가 살해당하자 시민들은 장례를 거부하였으나 대중연설을 통해서 시저의 정당성을 설득하였다. 연설의 내용으로는 시저의 유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과 브루투스의 부당한 살해사건을 청중들에게 알리는 연설을 하였다. 시저의 후광을 활용하여 브루투스와 대등한 권력을 잡았으며 말년에는 클레오파트라와 품에서 그녀의 노리개가 되어 허무하게 죽었다. 안토니우스가 군대를 이용해 시저를 죽이려고 했으나 브루투스가 먼저 시저를 죽임으로서 반전된 인물이다. 이후 시저의 조카이자 유산상속자인 옥타비아누스는 막대한 자금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안토니우스를 멸망

시켰으며 황제로 등극하였다.

플라타르크 영웅전에서 보듯이 리더의 역할은 출생과정과 성장과정에서 리더의 자질을 발휘함을 볼 수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왕이된 여러 왕들을 보면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목적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는 방탕한 생활을 함으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멩들어가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

영웅들마다 국가를 다스리고자 하는 통치개념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종점에 이르러서는 상승정지증후군현상에 휩싸여 방향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리더십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자가 좋은 리더십을 결정한다. 누구나 좋은 리더의 인자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